

'현우경' 이야기 (17)

무니 공주의 출가 인연

정성스런 등불공양이 부처이룬 공덕

옛날 잠부드비파에는 파새기라는 왕이 살고 있었다. 파새기 왕은 8만4000개의 작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다. 어느 날 파새기 왕에게서 왕자가 태어났다. 그런데 왕자의 모습이 남들과 많이 달랐다.

왕자의 머리에는 7가지 보석들이 박혀져 있었으며, 몸에서는 금빛이 났다. 왕자의 모습은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웠다. 모든 사람들은 왕자의 모습을 보고 감탄했다. 하지만 파새기 왕은 왕자의 모습에 걱정했다. 왕은 사람들을 시켜 관찰기를 불러오게 했다.

"어째서 왕자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인가?"

관상가가 말했다.

"왕자는 천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왕자와 견줄 수 있는 인간은 누구도 없습니다. 훗날 나라를 이끌어 갈 대왕이 될 재목이요, 왕이 되지 않는다면 부처가 될

것입니다."

관상가가 물었다.

"왕자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머리에서 보석이 저절로 자라났네."

관상가는 왕자의 이름을 보배상투라 짓고, 성을 나왔다. 시간이 흘러 왕자는 점차 장성해 갔다. 청년이 된 왕자는 어느 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닌, 출가의 길임을 확신했다. 결국 출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왕자는 곧장 왕을 찾아가 말했다.

"아버님 저는 왕의 자리를 물려받는 대신,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관상가의 말을 듣고 왕자가 훗날 부처가 될 재목임을 알고 있었던 왕은, 왕자의 출가를 흔쾌히 허락했다. 왕자는 그길로 바로 출가했고, 결국 도를 깨쳐 부처가 됐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제도했다. 그때 파새



삽화 · 강병호

기 왕은 부처가 된 왕자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었다. 그래서 석달 동안 부처와 스님들을 초청해 공양을 올렸다.

이 모습을 본 한 비구는 석달 동안 부처님께 올릴 등불을 구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에게 시주를 구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그 나라 공주 무니는 매일 같이 사람들에게

시주를 구하는 비구의 모습을 보고 신하에게 물었다.

"어째서 저 비구는 매일 같이 시주를 구하는가?"

"석달 동안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등불을 공양으로 올리기 위해 시주를 구하는 것입니다."

공주는 비구를 찾아가 말했다.

"지금부터는 시주를 구하려 다니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등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는 공주의 말에 크게 기뻐했다. 이후 공주는 매일 같이 등을 만들어 비구에게 보냈다. 비구는 공주가 만들어 준 등에 불을 켜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이 모습을 본 부처님이 비구를 크게 칭찬했다.

"너는 정차 부처가 될 것이다. 이제 너를 정광이라 하겠다."

비구가 장차 부처가 될 것이라는 소문을 들은 공주는 생각했다.

"부처님께 올린 모든 등은 내가 만든 것이다. 비구는 내가 만든 등을 전달해 주기만 했다. 그렇다면 나도 훗날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공주는 그 길로 부처님을 찾아가다. 공주는 부처님께 모든 사실을 말했다. 부처님이 공주의 얘기를 들은 말씀하셨다.

"너는 훗날 부처가 될 것이다. 이름은 석가모니이니라."

부처님의 예언을 들은 공주는 매우 기뻐했다. 잠시 후 공주는 갑자기 남자의 모습으로 변했다. 공주는 남자의 모습을 한 채 부처님 앞에 꿇어앉아 출가를 청했다.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흔쾌히 출가를 허락했다. 공주는 부처님께 도를 닦았고 수행을 계속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슈라바스티의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말했다.

"그때 부처님께 등불을 공양으로 올렸던 비구는 과거의 정광 부처님이다. 그리고 등을 만들었던 공주는 지금의 나이나라. 나는 과거에 등불을 보시함으로써 셀 수 없는 시간 동안 하늘과 인간계에서 복을 받고 살았다. 또한 다른 이들과 달리 몸도 특별했으며, 누구보다도 능력이 뛰어났다. 그때 등불의 보시가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당대 대장경 속 우화 19

-비구와 주모-

구성-김흥인

옛날 인도에 홀로 재가수행을 하는 미모가 빼어난 주모가 있었는데...

우파급다 존자님! 아세요? 저 아라한이 됐어요!

그녀는 적당한 수행으로 스스로 아라한*이 되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남자를 봐도 아무 느낌 없고! 존자님도 남자로 안보여요! 호호호

이 즈음, 우파급다 존자에게 출가한 한 비구는 육체적 욕망을 극복하고 있었다.

어느날...

여인을 봐도 아무런 애욕이 안생긴다!

아라한 [阿羅漢] 불제자들이 도달하는 최고의 계위(階位)

사부님! 드디어 아라한이 됐습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게 아냐! 공부 더 해!

정말이지 욕망과 집착이 끊겼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런 기쁨으로 산너머 주모랑 차 한 잔 마시고 와! 같은 아라한끼리...

비구는 약도를 들고 말로만 듣던 주모를 찾아갔다.

원 혼남?... 와...!

계세요? 나가요-

비구는 주모의 수려한 자태에 반해버렸고 주모 또한 비구의 용모에 호감을 느꼈다.

애기를 들은 주모는 비구에게 음료를 건네는데...

존자님은 안병하시죠?

네에...!

잔을 건내고 받다가 서로의 손끝이 닿았다.

두 사람은 순식간에 설레이며 애욕이 넘쳐났다.

아...! 쿵쿵 쿵쿵

그리고 각자의 수행이 한참 부족하다는걸 깨달았다.

밀었다 밀었어! 상사병까지 얻었네...! 큰일이다...!

수많은 번뇌와 고통 없이 해탈을 얻을 수가 없는거란다!

끝

◆3칸겹집 목조건물: 9500×7000×4500mm / 가격: 평당 150만원
다그라스목재기둥 180×180×2470 / 다그라스목재도리 170×170
다그라스목재서까래 100×100 / 목재판재 120×18 전통강판기와
주춧돌 300×300×300 ※ 황토흙 ALC블럭 내화벽돌 관벌 자유 선택
원하는 평수 가능 토목공사 부가세별도

◆분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조립식 평상: 1800×1030×400mm 분가세 별도
가격 29만원 → 할인가 19만원
플리프로필렌 자체 기둥 110×90×400 / 도리 80×35 / 중간대 80×35 / 마루판 210×12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지구산업
www.bangaro.com / 방갈로.com
TEL 063)323-3011~2 / FAX 063)323-3010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상담대환영
사찰 리모델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들에게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m²(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문의: 010-8442-4444 (상담)
묘목 재배 농장: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리 368